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Vol. 9(1), 67~78(1998)

연구논문

농촌지역 부부의 시간사용 실태 비교 및 관련요인 분석

김인숙 · 허경옥*
서원대학교 가정교육과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A Comparison of the Pattern and the Investigation of Determinants in Rural Couples' Time-Use

Kim, In-Sook · Huh, Kyung-O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eowon University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compared the pattern of couples' time-use in rural areas. Wives' and husbands' time spent in household work, leisure, and agricultural labor were compared.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what factors determine the amount of time of couples spent in such activ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in general, the pattern of couple's time-use in rural area was different. Regarding the pattern of time-use, three major results could be mentioned. First of all, husband in rural area spent most agricultural labour time in busy farming season. And then husband spent much time in leisure activities and wife spent in household work. Second, wife spent more time in inactive leisure and husband spent more time in active leisure. Third, husband in rural area spent less time in household work. In particular, they spent less time in female-typed work than male-typed work.

To examine what factors determine the extent of time spent in such activities, three theories were employed and test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dels employed in this study were realistic in explaining the amount of time of couple in rural area, and more adjustable wife than husband. In conclusion, a combin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theoretical perspectives used in this study helpfully explains the variation in the amount of time-use of couple in rural area.

Key Words : Time-use, Determinant of time-use, Pattern of time-use, Rural couple, Husband and wife in rural area.

Ⅰ. 서 론

자원으로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높아져 가면서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시간사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주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사용을 어떻게 하는가는 생활양식 및 생활향상, 그리고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인간행동과 시간사용은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초기연구는 주로 주부의 시간사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주부의 시간사용과 기타 가족원의 시간사용, 가족원의 시간사용과 생활의 다른 영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김외숙 외, 1995).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부부를 대상으로 시간사용 실태 및 시간사용 구조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크게 두가지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농촌 부부를 대상으로 가사노동과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시간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시간사용 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다. 둘째, 농촌 지역 부부들의 각 활동별 시간사용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이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부의 시간사용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고려되는 이용가능시간 이론, 자원 이론과 생애주기 이론을 적용하여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및 다른나라에서도 많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 부부의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이므로 우리나라 부부들의 시간사용에 관한 최근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하였다.

시간사용 연구에 관한 전체적인 조사연구로 김외숙과 이기춘(1988)은 1962년부터 1987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논문 43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에 대한 정리를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사용연구의 주요영역은 시간사용 구조, 가사노동 시간, 가사작업 간소화와 관련된 시간연구, 그리고 여가시간 연구라고 하였다.

임정빈 등(1992)은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1980년과 1990년의 10년동안의 생활시간 사용내용 변화를 시계열분석하고, 아울러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가정노동시간은 1980년에 비해 1990년에는 평일의 경우 약 3시간, 휴일은 4시간정도 감소하였고, 여가시간은 약 1시간정도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1980년에는 주부연령과 교육수준, 자녀수, 막내자녀 나이, 그외에도 주택형태와 난방방법이 가정노동 시간에 큰 영향변수였고, 10년이 지난 1990년에도 자녀수와 막내자녀의 나이, 소득과 주부의 교육수준은 여전히 가정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조희금(1993)은 대구지역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하여 1일 13시간이 넘는, 즉 하루 시간의 56%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을 함으로써 가족 및 자신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가사노동 시간이나 여가 시간은 물론 생활필수적인 시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희금(1997)은 대구시의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산직 여성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사무직 여성 가정의 부부 역시 수입노동 시간이 길어서 전체적인 생활시간 구조가 노동시간에 편중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매우 적어서 부인의 평일 여가시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다만, 부인의 경우 평일에 휴일보다 상대적으로 가사노동 시간이 짧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차원의 가사보조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 조희금의 두 연구를 통해, 생산직 근로여성과 사무직 근로여성은 모두 과중한 수입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의 참여도가 낮아 생활시간 사용상의 불균형과 제약상을 알 수 있었다.

이기영 등(1994)은 도시근로자 가정에서 남편은 장시간 수입노동에, 취업 주부는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노동시간이 많고,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사회 문화적 시간이 적으며, 오직 비취업 주부만이 노동력의 소비와 재생산 시간이 어느정도 균형을 갖는다고 하였다.

김외숙 등(1995)은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를 파악한 연구에서 남편과 중고교생 자녀들은 장시간을 노동 또는 학업관련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부인들은 평일에 약 6시간 가사노동을 하고 있고, 특히 부인의 경우 여가시간은 많으나 주로 텔레비젼 시청이나 비사회 지향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미환 등(1997)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무직 직장남성은 휴일에는 4시간, 평일에는 1시간 54분의 가사노동으로 하루 평균 2시간 12분동안 가사를 돌보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의 남편은 이보다 약 25~30분 정도 더 가사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설명하기 위하여 성역할 관념 가설, 상대적 자원 가설과 요구 반응가능성 가설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도시지역 부부의 시간사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았으며, 이번에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도시지역 부부에 대한 시간사용에 비해 농촌지역 부부의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미흡하였다. 먼저 농촌진흥청에서 매 5년 간격으로 (1983; 1988; 1993) 실시한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조사"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주부와 남편의 시간사용에 대한 조사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농촌부부의 시간사용 실태에 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희금(1989)은 농촌주부의 가사노동 시간 및 가사노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사노동 환경을 농업의 성격에 따라 전통농 지역과 상업농 지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농업노동 시간으로 볼 때 조사시기인 3월 중순에 상업농 지역은 농번기이고, 전통농 지역은 농한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가사노동 시간에는 상업농 지역의 경우 농업노동시간이, 전통농 지역은 사회 문화적시간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 조희금(1990)은 농촌주부의 생활시간을 시간량 및 시간대로 분석하였다.

김인숙 등(1996)은 농촌지역 부부의 생활시간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농번기에 주부는 남편보다 훨씬 많은 13시간이나 노동을 하고, 농한기에도 남편보다도 약 3시간 정도나 길게 노동을 함으로써 부부간에 심한 노동부담의 불균형을 밝혔다. 세부 생활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농번기에 주부는 중간지대에 비해서 평야지대가 아니거나 산간지대가 아닐수록, 남편은 가족수가 적을수록 주부나이가 젊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경지면적이 좁을수록 주부의 농업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중간지대에 비해서 평야지대가 아니거나 산간지대가 아닐수록 남편의 농업노동시간이 길어진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서의 거주지대 변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지대변수는 농가부부의 세부 생활시간 사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도시지역 부부와 농촌지역 부부의 시간사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대부분의 연구는 각각 도시 또는 농촌이라는 지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시간사용과 관련한 우리나라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이나 가설없이 시간사용과 관련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조사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단순한 시간사용의 실태조사나 관련변인 연구에서 발전하여 시간사용을 설명하는 이론적 축적이나 가설의 발전을 기초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지역간 비교는 불가하므로 수행가능한 시간사용 관련이론을 적용해 보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Ⅲ. 시간사용의 이론적 배경

시간사용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각자의 개별적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축적하면서 각기 다른 이론적 배경 또는 가설적 논리를 전개하여 왔다. 지금까지 발전, 전개되어 온 이론들 중 시간사용을 연구하기에 유용한 이론은 이용가능시간(Time Availability) 이론, 자원(Resources) 이론과 생애주기(Family Life-Cycle) 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세 이론들은 주로 가사노동 및 육아시간을 설

명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발전 전개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실증연구에서는 주로 부부의 가사노동 및 육아참여 정도, 가사노동 및 육아의 분담상태, 가사 및 육아노동 시간 결정요인 등과 관련한 세부주제에 대해 연구되어 왔으며, 여가시간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이같은 이론을 도입 적용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여기서 이 이론들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용가능시간 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시간제약 또는 이용가능한 시간의 정도에 따라 가사노동 및 육아시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이용가능한 시간이 많은 사람인 경우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 및 육아에 할애한다고 가정한다(Berk, 1985; Blood, Wolfe, 1960; Condran, Bode, 1982; Model, 1981). 많은 선행연구에서, 시간제약의 정도 또는 이용가능 시간의 정도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상태(예 : 전업 취업, 부분 취업, 비취업) 또는 주당 노동시간으로 측정하여 왔다(Bergen, 1990). 그리하여 취업 여성은 비취업 여성보다 이용가능한 시간이 적으므로 가사노동 및 육아에 적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며, 동시에 남편의 적극적 가사노동과 육아참여를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여성의 가정노동 시간사용 설명에는 대체적으로 설득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 Blood, Wolfe, 1960; Condran, Bode, 1982; Model, 1981; Ericksen et al., 1979). 그러나 여성 취업이 남편의 가사 및 육아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이론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맞벌이 가정에서 부인의 시간제약이 심한 경우에도 남편의 가사노동 및 육아시간은 증가하지 않고, 비취업 주부 가정 남편의 시간과 차이가 없는 점에서 이 이론을 적용하여 남편의 가정노동 시간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실증연구에서는 주로 가사노동과 육아시간을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여가활동에의 시간을 설명하는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시장노동 시간이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검증되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에 대하여 이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자원 이론

이 이론은 Blood와 Wolfe(1960)에 의해 최초로 전개된 이론으로서, 기본적 전제는 부부간의 의사결정시 부부 각각의 물질적 자원의 소유상태 또는 소유정도의 비교를 통해 시간사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자원의 소유정도가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자원(resource)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한편, 부부 각자의 자원소유의 정도를 비교하여 부부 중 물적자원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 가사노동 및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상대적 자원(relative resources) 이론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고소득과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취업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짧다고 밝혀진 연구가 있어 자원이론의 설득력을 보여주고 있다(Condran, Bode, 1982). 한편, 상대적 자원이론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은 남편의 저조한 가정노동 참여는 남편이 교육, 소득, 직업상의 지위 등에서 부인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의사결정시 주도권을 갖게 되고 가정노동 분담의 의사결정시 가사노동 및 육아노동의 참여를 기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에 비해 교육, 소득, 직업상 우위에 있는 부인의 경우에도 실제적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인 남편보다 가사노동시간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 자원이론의 설득력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비교가 아닌 절대적 의미의 자원이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본다.

자원 이론 역시 대부분 가사노동 및 육아시간 설명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많은 연구에서 여가시간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상황, 교육수준 등 자원의 소유정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이 밝혀져 왔으므로 여가 시간을 설명하는데 자원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3. 생애주기 이론

생애주기 이론은 가족의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시간사용의 차이가 있음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생애주기 또는 생애단계가 가사노동 및 육아시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가족구성원의 시간사용은 생애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특히 가치관, 취업으로 인한 업무정도, 그리고 자녀출산 등이 생애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생애주기는 시간사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 이론 역시 가사노동 및 육아시간을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Rexroat와 Shehan (1987)은 가족 생애주기에 따라 시간사용을 분석할 경우 부부의 연령, 자녀의 연령, 어린 자녀의 존재 등의 가족변수들을 통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결국, 이 이론에 따르면 가사노동 및 육아노동의 요구와 책임, 경제적 상황, 노동수행의 가능성 등이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간사용 연구시 생애주기에 따른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Duvall, Miller, 1985).

가사노동 및 육아노동 시간에 미치는 생애주기 이론의 효과를 검증한 Rexroat와 Shehan (1987)의 연구결과 이 이론의 가정이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trane (1990) 및 Coltrane과 Ishii-Kuntz (1992)의 연구에서도 이 이론의 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를 출산시기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가사노동 및 육아노동 분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 가사 및 육아시간은 매일의, 일상의 일로서 자녀의 유무와 직업으로 인한 업무의 정도 등의 변화에 근거한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결정됨을 밝혔다. 이기영과 이승미 (1994)의 연구에서도 도시근로자 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를 생애주기 및 기혼여성의 취업상태에 따라 구별하여 조사하였고, 권혜연 (1995)의 연구에서도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하여 가사노동 및 육아시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가사노동 및 육아를 포함하는 시간사용을 생활주기에 따라 전체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는 점에서 이 이론의 가치가 크다. 또한 가정의 환경적 조건, 가족상황을 고려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적이고 정서적인 면을 반영한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여가시간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생애주기 이론이 사용되어 오지는 않았으나 가족의 경제적 상황, 사회활동의 상황, 출산 및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여가활동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이론을 여가시간을 포함하는 시간사용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Ⅳ. 연구방법 및 절차

1.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는 농업경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농가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번기 (1993년 5월 10일~5월 29일사이)와 농한기 (1993년 2월 15일~2월 27일 사이)의 두 시기로 나누어 2차례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각 시기별로는 대상농가의 가장 평상적인 날을 택해서 1농가당 2일간씩 관찰조사법에 의한 시간일기 기입식으로 주부와 남편의 생활시간 내용을 기록하였다. 조사지역은 농촌지역을 농업유형별로 크게 중간지대(경기도), 평야지대(전남), 산간지대(경북)의 세 지대로 나누고, 각 지대별로 해당지대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군을 6개씩 선정한 다음, 각 군별로 2개 마을씩을 편의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마을별로 주부와 남편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규모별로 대농, 중농, 소농 각 1호씩, 모두 108호를 편의선정하였고, 각 농가별로 주부와 남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변수측정

본 연구를 위한 종속변수로는 조사된 2일간의 사

용시간 평균치를 사용하였으며,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번기와 농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부부의 가사노동과 여가활동에의 할애시간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사노동은 각 세부활동을 의·식·주생활과 관리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의생활은 빨래, 바느질, 다림질, 세탁된 옷 정리정돈 등을, 식생활은 식사준비, 설거지 등을, 주생활은 주택수선, 청소, 정리 및 정돈 등을, 관리는 가계부 기록, 구매, 기타 가사일에 관련된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여가활동은 Firestone과 Shelton (1988)의 분류를 참조하여 소극적 여가활동과 적극적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즉 적극적 여가는 집 밖에서 행해지는 활동, 시간제약이 있는 활동 등으로 야외에서의 취미활동, 마을활동, 종교활동 등을 포함하였으며, 친지 및 이웃 방문, 독서, 라디오 및 TV시청 등은 소극적 의미의 시간으로 분류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우선 시간사용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당 농업노동시간을 측정하였다. 이때, 농업노동 시간은 논일, 밭일, 양축, 영농준비, 과수작업, 시설원예작업 등 농업에 관련된 노동과 겸업, 판매 및 수매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가사노동과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를 규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는 시간사용을 설명하는 이론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용가능시간 이론, 자원 이론, 그리고 생애주기 이론을 도입하였다[1]. 따라서, 이 이론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수들을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선정된 독립변수들의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이용가능시간 이론

본 연구에서 이용가능시간 이론의 대리변수로서 부부의 농업노동시간 변수를 사용하였다. 본인의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노동시간도 시간사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부 각각의 노동시간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ii) 자원 이론

자원 이론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수준과 가계 총소득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조사대상 농가 중 대부분의 경우 부부간 교육수준은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각 조사대상이 갖는 절대적 의미의 자원으로 간주하여 본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가계 총소득 변수는 1년 총농가소득을 측정한 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농가소득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iii) 생애주기 이론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고려되는 생애주기 변수로서 어린자녀 존재, 총가족수, 가사조력자 유무, 연령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때, 어린자녀의 존재와 조력자 유무는 가변수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V. 연구결과

1. 조사가구의 일반상황

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농촌지역 가구는 생활구조상 주부도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어 시간사용 면에서 볼 때 주당 36시간정도의 농업노동을 하고 있으며, 남편은 54시간의 농업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농가의 월평균 소득은 111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농가부부의 교육수준은 모두 고졸이하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부부의 연령을 보면 부인이 44세, 남편은 47세였으며, 농촌가구의 가족수는 약 5명, 자녀수는 2.

1) 당초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과 육아시간, 그리고 여가활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시간사용을 설명하는 이론규명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나, 본 연구대상이 되는 농가의 경우 육아를 하는 가구가 108호 중 8호에 불과하여 부득이 육아시간에 대한 부분은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7명, 그리고 전체 대상농가의 57%에서 가사 조력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유급가사 조력자보다 친척이나 부모와 같은 가족 조력자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전체 대상농가의 7%에 불과하였다.

〈 표 1 〉 대상가구의 일반상황

특 성	평 균	표준편차
부인연령 (세)	43.60	9.15
남편연령 (세)	46.70	9.16
부인 노동시간 (시간)	36.49	21.70
남편 노동시간 (시간)	54.25	32.30
총소득(월, 만원)	111.11	63.31
가족수 (명)	4.94	1.41
자녀수 (명)	2.71	1.18
가사조력자 유무	0.57	0.50
어린 자녀 유무	0.07	0.26

참고 1) 근로시간은 주당 시간임.
2) 가사 조력자 및 어린 자녀 유무는 전체 대상농가 108호 중 '있다'는 가구의 비율을 계산한 것임.

2. 농촌 부부의 시간사용 실태 비교

부부의 시간사용을 비교 조사하기 위하여 각 활동별 하루평균 사용시간을 〈 표 2 〉에 제시하였으며, 시간사용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농번기와 농한기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부의 각 활동별 시간사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농번기에 남편은 하루중 농업노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부인 역시 농업노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농업노동 다음으로 여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부인은 가사노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편 남편은 가사노동에 매우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농한기의 시간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여가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부인은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농한기에도 부부 모두 농번기보다는 짧으나 농업노동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부인은 여가활동 시간이 가사노동 시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 활동별 시간사용에 대해 가사노동 시간을 먼저 살펴보면, 농번기/농한기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부인은 식생활 즉 음식만들기, 식사후 뒷처리하기 등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그리고 식생활 관련 활동 다음으로 여타의 가사노동 활동 중 의생활 관련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 표 2 〉 농촌지역 부부의 시간사용 실태

(단위 : 하루 평균, 분)

구 분	부 인		남 편	
	농번기	농한기	농번기	농한기
농업노동	486	130	694	236
가사노동	268	305	20	57
의생활	61	41	0	0
식생활	154	172	0	3
주생활	31	58	9	26
관 리	22	34	10	27
여가활동	111	328	142	467
소극적 활동	91	309	13	48
적극적 활동	20	19	130	419

참고 : 원 자료에서 포함하고 있는 가사노동 시간에서 가족시중 및 육아, 가족간 대화 부분은 제외시키고, 순수 노동부분만 포함시켰음.

여가활동의 경우 농촌부인은 농번기에 노동력 재생산의 의미를 갖는 적극적 의미의 여가활동보다는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농한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남편의 경우 농번기와 농한기에 상관없이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남편들이 마을일에의 참여에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하겠다[2]. 그러나 이는 농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

2) 본 연구의 적극적 여가활동의 분류에서 농촌지역의 경우 마을활동(예 : 영농방법에 대한 토론, 각종 마을사업에 대한 활동)도 포함시켰다.

는 내용의 여가활동과는 그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농번기인가 농한기인가에 따라 부부의 시간사용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농업노동과 여가활동 시간은 농사시기별로 큰 차이가 있었으나 가사노동 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절대적 의미의 시간비교에 그치지 않고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상대적 의미의 시간, 즉 참여비율 또는 공헌도를 조사 비교하였다.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비율 또는 공헌도는 각 활동에 대한 부부 모두의 사용시간 중 남편의 시간의 비율로 측정하였다[3]. 남편의 가사노동에의 공헌도는 〈 표 3 〉에 제시하였다.

〈 표 3 〉 농촌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공헌도

(단위 : %)

구 분	농번기	농한기
가사노동	7%	16%
의생활	0%	0%
식생활	0%	2%
주생활	23%	31%
관 리	31%	44%

〈 표 3 〉에서 제시한 결과를 보면, 농번기의 경우 남편의 참여비중이 낮았으나, 농한기에는 가사노동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기서 한 가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가사노동을 농번기에는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이같은 결과는 농촌부인의 경우 농번기에도 여전히 가사노동에의 부담이 많아 가족을 위한 노동서비스의 질 저하가 가족생활에 커다란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농한기에 상대적으로 농촌남편의 가사노동에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농가주부의 노동에의 부담이 적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가정생산 또는 가정노동의 부실로 농가의 노동력 재충전 및 생활의 질이 낮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가사노동의 세부활동별 참여도에서는 남편의 경우 의생활이나 식생활 분야의 참여는 거의 없는 반면, 주생활과 관리분야의 참여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번기에 비해 농한기에 남편의 의생활과 식생활 참여비중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사노동활동별 분야에서도 여성은 식생활 부분에, 남성은 주거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할애를 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역할분리가 뚜렷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허경옥(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한기에 남편의 참여도가 농번기보다 높은 것은 실제로 남편들이 농한기에 가사노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이라기 보다 농번기에 비해 부인들의 이 분야에의 할애시간이 더욱 길어졌기 때문을 이유로 들 수 있겠다.

2. 농촌 부부의 시간사용의 결정요인 분석

농촌지역 부부의 시간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비교하기 위하여 농번기 시간사용에 대한 요인을 세 이론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세부 생활시간에 대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살펴보기 위하여 변수로 선정된 시간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4] 그 결과는 다음 〈 표 4 〉와 같다. 여기서 보면 남편의 경우 농업노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간의 상관정도가 컸고, 부인의 경우에는 농업노동 시간이 가사노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과 상관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대한 사용배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본 연구의 변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의 생활시간은 상호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사노동의 상대적 의미의 시간, 즉 남편의 공헌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율=(남편의 가사노동 시간/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의 합) × 100.

4) 시간 변수 이외 채택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김인숙 등(1996)을 참조하기 바라며,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 〉 농촌 부부의 세부생활시간간 상관관계

구 분		농업노동시간	
		남 편	부 인
농업 노동	남 편	1.00	
	부 인	.31	1.00
가사 노동	남 편	-.41	-.27
	부 인	-.03	-.45
여가 활동	남 편	-.53	-.19
	부 인	-.23	-.41

농촌지역 부부의 시간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의 설득력은 남편보다는 부인의 시간사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략적으로 이용가능시간 이론이 각 활동별 시간사용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 이론의 경우 여가활동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그동안의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그리 영향력이 크지 않음이 밝혀진 반면, 가사노동 시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각 활동별 시간사용에 관한 변수들의 영향력, 다시말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 이론들의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 표 5 〉에 제시하였다.

농촌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에는 자신의 농업노동 시간과 가계 총소득, 그리고 총가족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이론은 모두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경우 자신의 농업노동시간이 짧을수록 가계 총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총가족수가 적을수록 가사노동에 더욱 많은 참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 이론 중 이용가능시간 이론만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농업노동에 덜 참여하거나 남편의 농업노동 시간이 길수록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농촌부부들은 부부 서로의 농업노동 시간에 상호영향을 미치며, 농업노동 시간의 제약이 가사노동시간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표 5 〉 농촌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결정요인

(표준화 회귀계수)

구 분	남 편	부 인
이용가능시간		
부인 농업노동	-0.18	-0.85***
남편 농업노동	-0.36***	0.21**
자원		
교육수준	-0.13	-0.03
가계 총소득	0.24*	-0.04
생애주기		
어린자녀 유무	-0.13	-0.08
총가족수	-0.21*	0.09
조력자 유무	0.13	-0.04
연령	-0.15	0.02
intercept	145.21***	400.39***
R square	0.30	0.63
F value	5.38***	21.42***

* p〈.05, **p〈.01, ***p〈.001

참고 1) 농촌부부의 경우 농업노동시간을 이용가능시간으로 사용함.
2) 어린 자녀 유무 및 조력자유무는 가변수 처리함.
3) 연령은 본인 각자의 연령임.

전체적으로 농촌지역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의 경우 이용가능시간 이론의 설득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편의 경우에는 자원 이론과 생애주기 이론 또한 설득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의 설명력은 남편의 경우 30%, 부인은 63%로 나타나, 특히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을 설명하는 데에는 이용가능시간 이론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여가활동 시간

부부의 여가활동 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

표 6〉에 제시하였다. 남편의 경우 부인의 농업노동 시간과 자신의 농업노동 시간이 여가활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인이 농업노동에 많이 종사하거나 자신의 농업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남편의 여가활동 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농업노동 시간만이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농업노동에 덜 참여할수록 여가활동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농촌지역 부부의 경우 농업노동 활동과 여가 활동은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6 〉 농촌 부부의 여가활동 시간 결정요인

(표준화 회귀계수)

구 분	남 편	부 인
이용가능시간		
부인 농업노동	0.14*	-0.69***
남편 농업노동	-0.89***	-0.07
자원		
교육수준	0.12	-0.08
가계 총소득	-0.06	0.04
생애주기		
어린자녀 유무	0.02	-0.11
총가족수	0.03	-0.02
조력자 유무	-0.02	-0.11
연령	-0.06	0.12
intercept	612.49***	335.57***
R square	0.73	0.44
F value	33.17***	9.59***

* $p < .05$, *** $p < .001$

참고 1) 농촌부부의 경우 농업노동시간을 이용가능시간으로 사용함.
2) 어린 자녀 유무 및 조력자유무는 가변수 처리함.
3) 연령은 본인 각자의 연령임.

전체적으로 농촌지역 부부의 여가시간의 경우 이용가능시간 이론의 설득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의 설명력 또한 남편의 경우 73%, 부인은 4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농촌지역의 남편과 부인 모두 이용가능시간 또는 시간제약의 정도가 여가시간을 결정함을 알 수 있다.

Ⅵ. 결과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시간사용을 비교 조사하고 각 활동별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특히, 각 활동별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적합하다고 고려되는 이용가능시간 이론, 자원 이론, 그리고 생애주기 이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남편과 부인은 농번기에는 하루 중 농업노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남편은 여가활동에, 반면 부인은 가사노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농한기에는 남편은 여가활동에, 그리고 부인은 가사노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시간사용에 있어서 부부간의 불균형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사노동의 세부영역별 사용실태를 비교하면, 부인은 가사노동 중 식생활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의생활 관련활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둘째, 농촌부인은 소극적 여가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농촌남편의 적극적 여가활동 역시 현대적 의미의 여가활동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었다. 농촌부부의 경우 농번기인가 농한기인가에 따라 농업노동과 여가활동시간은 차이가 있었으며, 가사노동 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다.

셋째, 남편의 가사노동에의 참여도를 비교하면 농한기에 대체적으로 남편의 참여도가 높은 반면, 농번기에는 낮게 나타났는데, 가사노동의 세부활동별로 보면 의생활이나 식생활에의 참여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주생활과 관리분야의 참여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사노동에서도 성별에 따른 역할의 분리가 뚜렷하여 남편들은 보다 남성중심형 과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식사준비나 의생활 관련 일과 같은 여성중심형 과업의 참여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의 설득력은 전체적으로 농촌부부의 시간사용에, 특히 남편보다

는 부인의 시간사용에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가능 시간 이론이 각 활동별 시간사용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원 이론의 경우 가사노동 시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각 활동별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농촌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이론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부인의 경우는 농업노동에 덜 종사하거나 남편의 농업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가능시간 이론만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가활동 시간에 대해서는 부부 모두 이용가능시간 이론만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간 생활시간 사용을 직접 비교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간사용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여지는 세가지 이론을 적용하여 농촌지역 부부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시도한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지역별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본 연구 역시 부부의 시간사용에 대해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 비교를 시도하지 못한 채 농촌지역에만 국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농촌과 도시가구의 시간사용 또는 이와 관련한 분야의 비교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서도 부부간의 시간사용에 관한 비교 외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시간사용, 생활양식 및 삶의 질과 시간사용의 관계, 시간제약과 시간사용의 전략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겠다.

참 고 문 헌

1) 권혜연(1995).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 : 가족생활 주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 김인숙·임평자·김희순(1996). "농가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사용". 한국 농촌생활과학회지, 제 7권(1) : 81 - 97.
3) 김외숙·이기춘(1988). "시간사용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3) : 171 - 187.
4) 김외숙 등 8인(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Ⅲ) : 시간 사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 129 - 142.
5) 농촌진흥청(1979; 1983; 1988; 1993).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보고서.
6) 이기영 등 3인(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 31 - 45.
7) 이기영·이승미(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3) : 11 - 26.
8) 조희금(1989).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 145 - 161.
9) 조희금(1990). "농촌주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 163 - 180.
10) 조희금(1993).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 101 - 112.
11) 조희금(1997).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 1 - 14.
12) 허경옥(1997).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구조분석 : 가정생산모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 319 - 337.
13) 허경옥·김인숙(1996). "농가주부의 시간배분 연구 : 가정생산이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 181 - 195.
14) 홍향숙·박수경(1994).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다른 부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 49 - 59.
15) 조미환·임정빈(1997).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 369-386.

16) 임정빈·임혜경(1992). 1980년과 1990년 도시 주부의 생활시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4) : 261-278.

17) Bergen, E. (1990).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domestic labor : An investigation of husbands' participatio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 of Wisconsin. NSFH working paper, 36, CDE, Univ. of Wisconsin-Madison.

18) Berk, S. F. (1985). The gender factory : The apportionment of weak in American household.. NewYork : Plenum Press.

19) Blood, R. O., & Wolfe, D. M. (1960). Husbands and wives. NewYork : The Free Press.

20) Coltrane, S. (1990). Birth timing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dual-earner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11 : 157-181.

21) Coltrane, S., Ishii-Kuntz, M. (1992). Men's housework :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 43-58.

22) Condran, J., & Bode, J. (1982). Rashomon, working wives, and family division of labor : Middle-tow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 421-426.

23) Duvall, E. & Miller, B. (1985).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New York : Harper and Row.

24) Ericksen, J. A., Yancey, W. L., & Ericksen, E. P. (1979). The division of family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01-313.

25) Firestone, J., & Shelton, B. A. (1988). An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women's work on available leisure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 : 478-495.

26) Model, S. (1981). Housework by husbands :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2 : 225-237.

27) Rexroat, C., & Shehan, C. (1987). The family life cycle and spouses' time i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 737-750.